



# 전환기를 극복하는 슬기

노 응희 / 서울대 교수

## 1. 모스크바의 인상

지난 7월초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다녀왔다. 학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소련·동구 대학교수시찰단」 여행이었다. 1주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고, 경험축적이 부족한 여행사의 안내도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이해부족등으로 마냥 즐겁기만 했던 여행은 아니었으나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다.

70여년동안의 사회주의체제에서 누적된 각종 정치·경제·사회문제를 시정해 보려는 몸부림속에서 분출된 혼란에 가까운 전환기에 처해있는 사회주의 중주국가인 소련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원속의 도시를 연상케 하는 광활한 녹지공간속에 방사순환형으로 짙 짙 뻗어나간 폭넓은 도로망, 지하 지상을통해 4층으로 체계화된 저렴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체증이 고질화되지 않은 도시교통, 사원을 중심으로 한 제정러시아시대의 고색창연한 구조물과, 사회주의의 위대성을 과시하려는듯 스탈린시대에 마련된 웅장한 기념비적 구조물, 그리고 기능주의에 입각한 현대적 건축물등이 혼재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구 850만의 모스크바의 거리는 아직도 자본주의

체제의 부수물인 일회용문화(一回用文化)에 물들지 않아 폐기물이 적어 깨끗하였다. 그러나 공항의 출입국 절차나 호텔의 투숙 수속이 몇시간씩 걸리고, 외모로는 번듯한 고층구조물의 내부시설 유지관리미비는 이 나라 관료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것 같았고, 근무시간임에도 담배피우며 잡담으로 정해진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공장근로자들의 근무자세에서 유인체제(誘因體制) 없는 사회주의국가의 생산성 저위성의 원인을 보는것 같았으며, 쇼윈도우나 네온사인이 없는 거리의 모습은 단조롭게만 보였다.

이 무렵 전세계는 온통 월드컵축구에 들떠 있었다. 모스크바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으나 그들은 나름대로 커다란 국내행사를 겹쳐서 치르고 있었다. 제28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그것이고, 차이코프스키 콩쿨 '90(제9회)의 개최가 그것이다. 러시아 호텔이나 우크라이나 호텔 같은 외국인용 호텔은 이들 대표자들이 차지하는바 되어 우리 일행이 투숙한 곳은 내국인 전용호텔이었다. 이즈마이로보 호텔, 이곳은 올림픽 선수촌으로 10년전에 지어진 고층호텔이었으나 그 시설은 침소한 것이었다. 객실에 에어컨 시설이 없어 석양별에 달아오른 실

내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방의 북도쪽 출입문을 서로 열어놓고 각자의 행동에 눈치를 보아야만 했다. 수십명씩 떼를 지어 투숙 수숙을 하는 로비의 조명상태는 여권글자를 읽기 힘들 정도로 어두웠다.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정문을 지키는 직원에게 무언가 집어주고 들어오는 비투숙객들의 행태도 신기했지만 그렇게 호텔에 들어온 사람들이 고작 북도에 있는 슬롯트 머신을 돌리거나 기념품가게에서 줄서 보잘것 없는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는것도 진풍경이었다. 지정된 시간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2층 식당옆의 화장실에는 누군가 떼어가서 떨어져 나간 뚜껑없는 양변기에 수북하게 높이 쌓인 배설물을 그냥둔채 계속 흘러내리는 물 소리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시청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다. 에어컨의 통풍구에 해당하는 구멍에서 에어컨의 조절기같은 스위치를 돌리니까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도 신기하였고, 검은색 칩대가 주는 인상에 못지않게 물마개가 없는 세면대나 욕조가 구멍이 메어 제대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것도 기이하였다. 스위치를 넣고 1분이상 지나야 화면이 나타나는 흑백TV, 손님이 타고 20초가 지나도록 문이 안닫히고 중환자용 병원것 모양 천천히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등도 모두 이국적이었다. 속식산업인 맥도날드의 모스크바영업소에서 햄버거를 사먹기 위해 몇시간씩 줄지어 기다리는 수백명의 행렬, 여성양말이나 화장품을 사기위해 백화점 일일층 통로를 줄지어 배우고 있는 사람들로 부터 길거리의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담배를 사기위해 늘어진 수십명의 행렬들은 모두 신기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속에서 물자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고생을 연상하기보다는 무언가 때를 기다리며 질서유지에 익숙해진 이들의 느긋한 믿음에 찬 행태가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포장용 비닐주머니는 그 자체가 상품이고 상품포장지로는 질 낮은 백로지가 쓰이는데, 그것도 곱게 찢려 신문지와 더불어 집단농장 주택의 옥외화장실에서 이용되고 있고 음료수 자판기에 놓여진 유리컵은 꺼꾸로 둘러 뿜어나오는 물에 소독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것을 보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물자절약에 노력하는 이들에게 머리 숙이지않을 수 없었다. 과소비를 비난하고 있는 우리들의 대부분이 무심하게 한번 쓰고 버리는 포장지나 종

이컵의 이용자체가 과소비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부끄러운 것은 우리들의 몸에 배인 조급주의였다. 개폐작동버튼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닫히는 그 일이십초를 참지못해 계속 목표층 수자버튼을 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모처럼 우리 음식을 먹기위해 찾아간 평양식당이나 오작교에서 밀 반찬만으로 식사를 끝내고 반찬이 시원치 않다고 투정하며 주문식단 반찬이 나오기전에 식당을 뒤로 하는 우리의 습성속에서 무언가 병적인것을 깨닫게 하였다. 성급한 행동은 속단을 넣고 이속단은 오해를 물고와 오해로 인한 충돌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조차 보였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 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은 알바트거리였다. 보행자천국으로 되어있는 이 거리는 말보로분위제를 구축해 가고 있는 암달라상, 찬송가나 디스코음악을 연주해대는 거리의 악사들, 정치연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두정치인, 물품구걸을 하는 부랑인이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에 이르기까지 생각이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여러계층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 무질서속에서 형성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질서가 바로 소련의 앞날이고, 이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르비대통령, 즉, 그거리에서 잠상인들이 팔고있는 마트로쉬가(목각인형)에 만화적으로 그려진 그의 얼굴이 회화적인 것에서 진지한 참된 것으로 우뚝 돋보이는 진상인지 모른다고 느꼈다.

## 2. 고르비와 노벨평화상

고르바쵸프 소련대통령이 금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다. 오늘날의 극적인 세계평화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공로가 선정이유라고 한다. 그가 집권한 지난 5년동안 신사고(新思考)라는 발상전환을 통해 추진해 온 개방정책과 개혁정책이 주효하여 알타체제하의 동서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대결을 협상으로 전환시킨 이른바 말타체제를 구축하였고 군비통제와 군축과정에서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동유럽국가들은 자유를 되찾았고 군비경쟁은 둔화되어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상 수여는 세계평화를 정착시킨 그의

공로에 대한 수상이라기 보다는 정착을 위한 그의 노력을 고무격려하는 성격이 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5년동안의 그의 노력에 의해 국제사회가 세계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정착되었다고 믿기에는 아직도 사태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은 종전의 냉전도식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었던 미소간의 UN중심협력체제를 구축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분규의 장기화는 무력충돌을 몰고올 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급기야는 반유대주의, 일신교간의 종교적 충돌을 통해 새로운 세계분쟁을 일으킬 불씨를 안고있다.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고단수 전술이라고 비아냥받고 있는 고르비에 의한 동구국가들의 해방과 분단독일의 통일지원은 그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고르비의 눈앞에서 고된몸살을 앓고있을뿐 신통한 향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다당제의 도입을 통한 정치적 민주화와 계획경제를 지양한 시장경제의 도입은 지난 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몸에 익힌 국민들의 타성을 떨쳐버리기 힘들다는 사실만을 혼란으로 실증하고 있을뿐이다.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이상향의 실현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숭고한 것으로 믿고 있는 스탈린주의나 모택동주의 추종자들이 이끄는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등이 아직도 새로운 국제사회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적응력을 상실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채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것은 소련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혼란이다. 개혁의 속도를 놓고 마찰을 거듭하고있는 급진주의자들과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의 일촉즉발적 대립, 민족주의를 앞세운 연방구성 15개 공화국중 이미 13개 공화국의 독립(주권) 선언을 통한 소비에트연방체제의 붕괴위기, 관료체제의 이완속에 나타난 사회적혼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차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몰자부족에 따른 국민의 생활고 등은 서방국가들의 경제적지원 없이는 촛보도 앞으로 나갈수 없는 난국에 처해있다. 이리하여 작년 7월의 파리 알슈·씨미트에서는 사회주의의 질곡에서 해방된 동구국가들에 대한 서구선진국의 경제원조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고 급년 7월에 있는 NATO수뇌회의와 휴스턴·씨미트에서는 세계최강대국이라고 자타가 인정한 소련에

대한 경제원조문제가 거론됨에 이르렀다. 소련이 서방 선진국의 피원조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르비초프의 정치적 승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실각되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완전히 좌절되고 이 좌절은 세계를 또 다시 불안정속에 몰아넣게 된다는 의구심을 서구지도자들에게 인식시켜 국제적 흐름을 이용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환기적 혼란을 극복해 보려는 그의 계산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수상결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3. 시장경제 개혁안 채택

10월 19일 소련최고회의는 시장경제이행계획안(市場經濟移行計劃案)을 찬성 3백56, 반대 12, 그리고 기권 26으로 승인했다. 이른바 고르비개혁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서 70여년간에 걸친 중앙계획경제체제(中央計劃經濟體制) 하에서 파산상태에 이른 경제체제를 목표로 본격적인 자본주의(資本主義) 도입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안의 채택과정은 사회주의중주국인 소련의 혼란상과 고르비대통령의 고민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시장경제이행에 대한 시기와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보수·혁신간의 의견차가 크고 이 고르비개혁안은 급진세력이 지지하는 사탈린안과 보수세력이 지지하는 리슈코프안을 절충한 이른바 「물탄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그 앞날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소련정부는 리슈코프안을 제시한바 있다.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각종 특권을 누리던 노멘클라투라들의 기득권상실(既得權喪失)에 대한 반발을 감안한 점진적개혁안(漸進的改革案)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러시아공화국의 열친 최고회의의장을 필두로 하는 급진적개혁론자(急進的改革論者)들의 맹비난을 받았다. 이리하여 마련된 것이 이른바 5백일안이라고 불리는 사탈린안이었다. 소련과학아카데미 경제학부장이며 대통령회의 위원인 사탈린교수(56세)가 고르비와 열친의 합의아래 개혁안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후 마련한 안이다. 5백일동안에 사회주의경제를 매장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제도를 도입한다는 야심적인 개혁안이었다. 이 안은 연방정부와 공

화국정부사이의 권력분산(權力分散) 문제에 있어서 경제운영에 관한 중요한 권한은 모두 공화국에 이양되고 중앙정부는 단순한 조정자(調整者) 역할만 해야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마련된 것이어서 분권론자인 엘친의 지지를 받았으나 노멘클라트라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에 통과된 고루비안이란 이 두가지안을 절충한 것이다.

소련의 경제사정은 심각하다. 88년 이래 오늘날까지 140개도시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소비재 1천2백품목 중 소비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품은 불과 60~70 품목이고 나머지는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다. 통화량(通貨量)에 대한 상품량(商品量)이 1백분의18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89년도에 전년도대비 실질 3%였던 GNP는 금년 1·4분기에는 전년도 동기대비 마이너스 1%(년율 마이너스 4%)로 떨어지고있다. 소비재 부족현상(消費財不足現象)은 이 나라가 일관해서 채택해온 중공업(군수공업) 우선정책이 그 먼 원인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원인은 페레스트로이카시책에도 있다. 국영기업법(國營企業法)으로 88년 1월부터 도입한 독립채산제와 자기자금조달제를 둘러싼 행정명령

방식과 시장경제방식의 혼재로 인한 모순이나 협동조합법(協同組合法, 88년 5월 채택)의 제정으로 우후죽순처럼 신설된 협동조합의 경과를 둘러싼 착오와 혼란 등이 이를 가속화 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조건아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르비초프 대통령의 국내적인기는 국제사회에서 그가 얻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러나 그는 쉬지않고 끈질기게 개혁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결정도 이런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6·29선언후 출범한 6공화국도 통치기간의 절반을 넘겼다. 한 세기동안에 걸친 정통성없는 군사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대단하다. 그러나 지난 3년여에 걸친 짧지 않는 세월동안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것은 무엇일까?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의 확인단계에서 허송세월해 온 우리였다. 모두가 자기책임아래 각자가 해야할 직분을 못찾고 남의 잘못만 탓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비판하기엔 이르다. 으짖하게 대응해가는 고르비의 자세를 격려해가며 우리도 무언가 혼란속에서 새질서를 찾는 교훈을 배워보자.\*

UNEP '90년 제18회 世界環境의 날 주제

## 아동과 환경

The Children and the Environment